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513-558
<https://doi.org/10.29212/mh.2026..140.5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8

단기속결전 사상의 진화와 좌절

- 철도에서 AI까지, 결정적 승리의 꿈

송승종 |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객원 연구위원

- 목 차
1. 서론
 2. 결정적 회전 사상의 형성: 나폴레옹에서 클라우제비츠까지
 3. 산업화와 단기속결의 도그마: 철도와 전차의 시대
 4. 정보화·정밀화 시대의 부활과 반전: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중심전
 5. AI 시대와 결정적 승리 신화의 부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6. 결론 및 시사점

초 록 본 연구는 근대 이후 군사기술의 혁신이 ‘결정적 승리’에 대한 낙관을 거듭 증폭시키며 단기속결전의 신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온 과정을 전략사상사와 전사(戰史)의 결합을 통해 통시적으로 추적한다. 나폴레옹과 클라우제비츠 시대에 형성된 결정적 회전(會戰) 사상은 철도·전차·공군력·정밀유도무기·네트워크중심전, 그리고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단기속결전의 기대를 되살렸다. 그러나 마른과 바르바로사, 이라크와 아프간,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실제 전쟁은 마찰, 적의 독립된 의지, 비선형적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거듭 장기화의 경로로 접어들었다. 이 글의 핵심 논지는 군사적·작전적 성공이 전략적·정치적 승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고전적 통찰과 전쟁의 비선형성에 관한 현대적 논의를 결합하여, AI 시대에도 결정적 승리의 꿈이 구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규명하고, 단기 속결이 예외적으로 관철된 반례(反例)들의 검토를 통해 논지의 성립 조건과 적용 범위를 확정하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한다.

주제어: 단기속결전, 결정적 승리, 클라우제비츠, 마찰, 인공지능, 군사혁신 (RMA)

1. 서론

전쟁을 단 한 번의 결정적 타격으로 끝내려는 욕망은 근대 군사 사상의 오래된 충동 가운데 하나다. 짧은 전쟁, 적은 희생, 쉬운 승리의 3가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결정적 승리’는 한니발의 칸나에(Cannae) 포위전에서 발원하여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Austerlitz)와 예나(Jena) 섬멸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슈타인 기갑군단의 전격전(Blitzkrieg)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략가들의 상상력을 지배해 왔다. 그 매혹의 요체는 단순명료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과 불확실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전쟁을 짧게 끝낼 수 있다면 그 모든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속결전은 이러한 계산을 작전적 차원에서 구현한 개념이며, ‘결정적 승리’는 그러한 이상의 실천적 표현이다.

그러나 전쟁사의 기록은 그 약속이 거둬 어긋났음을 보여 준다. 1914년 8월, 유럽 강대국들의 참모본부는 한 차례의 거대한 공세로 전쟁의 결판을 내겠다는 구상 아래 군대를 진격시켰으나, 9월 초 마른(Marne)에서 공세가 좌절되면서 전선은 4년에 걸친 참호전의 진흙탕에 빠져들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집단적 오판을 ‘단기전의 환상(short-war illusion)’이라 명명했다.¹⁾ 같은 시기 독일군과 프랑스군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공세 숭배(cult of the offensive)’, 곧 단호한 공격만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신념은 방어 우위라는 당대의 기술적 현실을 외면한 채 수백만 명의 희생

1) L. L. Farrar, Jr., “The Short-War Illusion: The Syndrome of German Strategy, August-December 1914,”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Vol. 12, No. 2 (1972), pp. 39-52.

을 초래했다.²⁾ 주목할 점은 이런 환상이 1914년의 일회적 오류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군사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되살아났다는 사실이다. 철도는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의 동원과 집중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으로 기대되었고, 전차는 전선의 교착을 돌파할 기동 수단으로, 공군력은 적의 심장부를 직격하는 결전의 도구로 각각 환영받았다.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중심전은 표적을 정확히 가려내어 전쟁을 외과수술처럼 신속히 종결하리라는 기대를 낳았으며,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그 기대를 가장 강력하게 담지하는 기술적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낙관이 되살아날 때마다 전쟁은 마찰과 적의 대응, 정치적 의지, 전후(戰後) 질서의 부담으로 인해 훨씬 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 되었다. 1991년 걸프전의 압도적 승리조차 첨단 기술이 전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신화로 포장되었으나, 뒤에서 보듯 그 승리의 원인은 기술만이 아니었으며, 바로 그러한 오독(誤讀)이 이후 첨단 전쟁관의 위험한 자기확신을 키웠다.

이러한 오랜 역설은 AI 시대에 들어서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단기속결전으로 키이우를 단숨에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받아 낸다는 구상 아래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미 합참의장 밀리(Mark A. Milley)조차 전면전 발발 시 키이우가 72시간 내에 함락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³⁾ 현재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든 장기 소모전으로 변질되었다.⁴⁾ 개전 4년 후인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

2) Stephen Van Evera, "The Cult of the Offensive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1 (Summer 1984), pp. 58-107.

3) "Gen. Milley Says Kyiv Could Fall within 72 Hours if Russia Decides to Invade Ukraine," *Fox News*, February 5, 2022.

4) Mykhaylo Zabrotskyi, Jack Watling, Oleksandr V. Danylyuk and Nick Reynolds, "Preliminary Lessons in Conventional Warfighting from

엘 연합군은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이하 OEF)’으로 명명된 다영역 정밀타격작전을 개시했다. 개전 수 시간 만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li Khamenei)를 비롯한 지도부 수십 명이 제거되고, 38일간의 대규모 전투작전 끝에 휴전이 발효되자 미 행정부는 이를 ‘결정적 군사적 승리(decisive military victory)’로 선언했다.⁵⁾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 외교협회(CFR) 등의 독립적 분석은 미국이 전술적 타격에는 성공했지만 지하 핵시설의 파괴, 호르무즈 해협 위협의 제거,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나 검증 가능한 핵 폐기 같은 정치적 결과의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⁶⁾

단기전의 환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1914년 사례에 집중되어 왔다. 일레로 파라(L. L. Farrar)는 독일 전략의 ‘단기전 증후군’을 분석했고, 헤르비히(Holger H. Herwig)는 이를 새롭게 재해석했으며,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와 스나이더(Jack Snyder)는 그 사상적 뿌리를 ‘공세 숭배’ 개념으로 규정했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단일 전쟁의 기원을 해명하는 데 머물러, ‘결정적 승리’의 관념이 기술 변화와 맞물려 세대를 넘어 반복 재생산되는 장기적 동학(動學)을 통시적으로 추적한 작업은 드물

Russia's Invasion of Ukraine: February-July 2022,”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November 30, 2022.

5) The White House, “Peace Through Strength: Operation Epic Fury Crushes Iranian Threat as Ceasefire Takes Hold,” April 8, 2026. 38일간의 대규모 전투작전은 휴전 발효와 함께 종료되었으며, 작전은 2026년 5월 5일 공식 종결되었다.

6) The Soufan Center, “‘Operation Epic Fury’ Eclipses Diplomacy,” *IntelBrief*, February 28, 2026.

7) Holger H. Herwig, “Germany and the ‘Short-War’ Illusion: Toward a New Interpret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6, No. 3 (July 2002), pp. 681-693; Jack Snyder,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Military Decision Making and the Disasters of 1914*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다. 본고의 목적은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 군사기술의 혁신은 왜 반복적으로 단기속결전의 가능성을 약속하였으며, AI 시대에 이르러 그 기대는 어떻게 재점화되고 또 좌절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고는 다음의 논지를 제시한다. 군사기술의 혁신은 ‘결정적 승리’에 대한 낙관을 거듭 부풀려 단기속결전의 신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으나, 실제 전쟁은 마찰과 적(敵)의 저항 의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번번이 장기화로 귀결되었다. 요컨대 기술은 ‘결정적 승리’의 꿈을 끊임없이 되살리지만, 그 꿈을 좌절시키는 전쟁의 본질적 속성은 기술의 진보만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본고가 시도하려는 학술적 분석의 이론적 토대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제시한 전쟁의 본질에 관한 통찰이다. 그는 마찰(Friction), 공격의 정점(Kulminationspunkt des Angriffs), 그리고 전쟁이 살아 있는 적의 의지와 겨루는 상호작용이라는 명제를 통해, 군사적 결판이 곧 정치적 해결을 보장하지 않음을 일찍이 간파했다.⁸⁾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에 관한 현대의 통찰이다. 예를 들어, 브레너(Joel Brenner)는 정보와 연산 능력이 아무리 증대되어도 ‘전략적 기습’은 제거될 수 없음을 논증하면서 그 근거로 카오스(chaos) 체계의 비결정성과 사회 현상에 내재한 피드백 효과를 들었고,⁹⁾ 골드파브(Avi Goldfarb)와 린지(Jon R. Lindsay)는 AI가 전쟁에서 인간 판단의 중요성을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¹⁰⁾ 이들

8)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9) Joel Brenn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Surp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50, No. 3 (Winter 2025/26), pp. 127–155.

10) Avi Goldfarb and Jon R. Lindsay, “Prediction and Judgment: Why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Humans i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3 (Winter 2021/22), pp. 7–50.

통찰을 결합하면 ‘결정적 승리’의 환상이 시대를 가로질러 반복되는 이유와 그것이 끝내 좌절되는 이유를 하나의 분석틀로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하의 사례 분석에서 마찰과 우연, 공격의 정점, 방어 우위, 적의 독립적 의지, 정치 우위(군사적 결판과 정치적 종결의 간극)라는 5개 범주를 공통의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각 장은 새로운 기술이 상기 범주들 가운데 무엇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어느 범주가 그 약속을 좌절시켰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본고는 전략사상사와 전쟁사의 결합을 선택하였다. 사상적 계보를 추적하되 그것을 구체적 전쟁의 전개 및 결과에 비추어 검증하는 방식이다. 자료는 클라우제비츠와 조미니의 저작, 독일 총참모부의 전쟁계획을 둘러싼 사료 연구, 「걸프전 공군력 조사(Gulf War Air Power Survey)」와 미 국방부의 「데이터 · 분석 · AI 채택 전략」 같은 공식 문헌을 중심에 두고, 이를 국제 학계의 이론적 · 경험적 분석으로 보완한다. 다만 본고가 다루는 가장 최근의 사례인 이란 전쟁은 휴전이 성립했을 뿐 정치적 종결에 이르지 못한 진행형 사안이므로, 해당 부분의 평가가 잠정적임을 미리 밝혀 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나폴레옹에서 클라우제비츠에 이르는 시기에 결정적 회전(會戰)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 좌절의 단서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살핀다. III장은 철도와 전차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대에 단기속결의 도그마가 ‘슐리펜 계획(Schlieffen Plan)’과 전격전으로 구현되었다가 마른과 바르바로사(Barbarossa)에서 붕괴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IV장은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중심전이 결정적 승리의 기대를 되살린 걸프전을 중심으로, 그 기대가 이라크 · 아프간의 장기 분란전(insurgency)으로 반전되기까지를 검토

한다. V장은 AI가 똑같은 기대를 다시 소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분석하여, 킬체인(kill chain)의 압축이 결정적 승리의 약속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또 좌절시키는지를 규명한다. VI장은 이상의 분석을 이론적으로 종합하고, 단기속결이 예외적으로 관철된 반례들을 검토하여 논지의 적용 범위를 확정한 뒤, 그 연장선에서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2. 결정적 회전 사상의 형성: 나폴레옹에서 클라우제비츠까지

가. 나폴레옹 혁명과 결정적 회전의 탄생

결정적 승리의 근대적 관념은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태어났다. 18세기의 전쟁은 대체로 군주의 제한된 목적을 위한 ‘내각전쟁(Kabinettskrieg)’이었다. 값비싼 상비군을 보존하려는 신중함 탓에 결전을 회피하고, 기동과 요새, 보급선을 둘러싼 소모적 각축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 대혁명이 불러온 국민총동원(levée en masse)은 이러한 제약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국민개병제로 충원된 대규모 군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었고, 혁명적 열정은 전쟁의 목적을 군주의 영토적 야심에서 적의 완전한 굴복으로 끌어올렸다.¹¹⁾

나폴레옹은 이 새로운 수단을 결정적 회전(bataille décisive)의 추구로 전환시켰다. 군단 편제를 통해 분산 행군과 신속 집중을

11) Russell F. Weigley, *The Age of Battles: The Quest for Decisive Warfare from Breitenfeld to Waterloo*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결합함으로써 적의 주력을 한 차례의 회전에서 포착·섬멸하고, 그 여세로 적에게 강화(講和)를 강요하고자 한 것이다. 1805년의 아우스터리츠와 1806년의 예나 전투가 그 전형이다. 단기간의 전역(戰役), 결정적 전투, 적의 정치적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가 곧 전쟁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델브뤽(Hans Delbrück)이 훗날 ‘섬멸전략(Niederwerfungsstrategie)’이라 명명한 사고, 곧 적군의 파괴를 통해 평화를 강요한다는 관념은 이렇게 자리 잡았다.¹²⁾

그러나 나폴레옹식 결정적 회전의 논리는 눈부신 성공의 정점에서 이미 자기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아군은 공간과 시간, 기후와 보급의 압력을 무기 삼아 후퇴를 거듭했고, 보로디노(Borodino)의 유혈 회전마저 나폴레옹이 갈망한 섬멸전이 되지 못한 채 러시아군의 조직적 철수로 끝났다. 적 주력의 격멸로 전쟁을 단숨에 종결하려던 전쟁술은 광대한 전장과 상대의 전략적 인내 앞에서 소모와 붕괴의 논리로 역전되었으며, 모스크바 점령은 전쟁의 종결 대신 프랑스 대군(Grande Armée)의 소멸을 불러왔다.¹³⁾ 결정적 회전의 이상이 완성된 바로 그 순간, 그 이상이 적의 의지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는 최초의 거대한 반증이 함께 기록된 셈이다.

나. 조미니: ‘결정적 승리’의 과학화

조미니(Antoine-Henri Jomini)는 나폴레옹의 실전을 하나의 학설로 완결시킨 인물이다. 1838년의 『전쟁술(Précis de l'art de la guerre)』에서 그는 전쟁을 ‘불변의 원칙’이 지배하는 과학으로

12) Hans Delbrück, *History of the Art of War*, trans. Walter J. Renfro, Jr., 4 vol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5-1985).

13) Adam Zamoyski, *Moscow 1812: Napoleon's Fatal March* (New York: HarperCollins, 2004).

체계화했다. 우세한 전투력을 결정적 지점(point décisif)에 집중할 것, 내선(內線)을 활용할 것, 공세를 견지할 것, 그리고 적 주력을 격멸하는 결정적 회전을 전역의 목표로 삼을 것 등이 그 핵심이다.¹⁴⁾ 조미니의 매력은 이론적 명료성과 규범적 단호함에 있다. 올바른 원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승리가 따라온다는 확신은 복잡성과 우연이 지배하는 전쟁을 합리적 계산과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자신의 원칙을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선언하며, 철도와 전신(電信) 같은 기술적 진보조차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한 점이다. 한니발과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을 승리로 이끈 원칙이라면 전장의 물리적 양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없이 관철되리라 믿은 것이다.¹⁵⁾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결정적 승리는 언제나 공식화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훗날 세대마다 되살아날 ‘승리 지상주의’의 지적 기원이었다.

조미니의 파급력은 지대했다. 19세기 유럽의 참모조직은 그의 개념적 어휘로 작전을 구상했고, 미국에서는 웨스트포인트의 머헨(Dennis Hart Mahan)을 통해 그의 논리가 이식되어 남북전쟁을 주도한 장교단의 작전적 사고를 형성했다.¹⁶⁾ 요컨대 조미니는 나폴레옹 유산의 낙관적 절반, 곧 방법을 통한 승리의 약속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마찰과 우연, 정치적 복잡성을 이론 체계 밖으로 밀어냈다. 이후 세대가 물려받은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냉철한 신중함이 아니라 조미니가 약속한 도식적 승리의 환상이었다.

14) Antoine-Henri Jomini, *The Art of War*, trans. G. H. Mendell and W. P. Craighill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862), pp. 70-103.

15) Azar Gat, *A History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 John Shy,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in Peter Paret,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143-185.

다. 클라우제비츠: 섬멸전의 이상과 내부의 균열

클라우제비츠 역시 결정적 회전과 적의 타도(打倒, Niederwerfung)를 전쟁술의 중심에 두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단순히 조미니의 대척점에 위치한 사상가가 아니며, 『전쟁론(Vom Kriege)』의 상당 부분은 나폴레옹식 섬멸전에 대한 깊은 성찰에 바쳤다. 그러나 그는 같은 책 속에 단기속결전의 꿈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련의 단서를 남겼다. 첫째, 전쟁은 두 개의 살아 있는 의지가 맞부딪치는 결투다. 적은 수동적 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작용하는 주체이므로, 어느 한쪽도 전쟁의 기간과 경로를 일방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 둘째, 마찰이다. 서류 위의 전쟁과 실제의 전쟁 사이에는 악천후·피로·공포·지휘 혼선 같은 무수한 작은 저항이 개재하여 가장 단순한 일조차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¹⁷⁾ 셋째, 공격에는 정점이 있다. 공세는 성공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지나면 오히려 자신의 성공 때문에 약해진다. 전진은 전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병참선의 신장(伸張), 점령지 관리, 병력 분산, 피로 누적, 적의 반격 가능성을 함께 키우기 때문이다. 넷째, 방어는 공격보다 강한 전쟁 형태다. 공격이 주도권을 쥐는 대신 필연적으로 자기 소모적인 반면, 방어는 지형과 시간, 내선의 이점 위에서 힘을 비축한다.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를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역습을 위한 발판으로 이해했으며, 이는 공세만을 맹신하던 후대의 ‘공세 숭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통찰이었다.¹⁸⁾

무엇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규정했다. 적 군대의 파괴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며, 수단의 성취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군사적 결판과 정치적 종결 사이에는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가 1827년 7월 10일의 각서에서 적의 완전한 타도를 지향하는

17) Clausewitz, *On War*, Book 1, Chs. 1, 7.

18) Clausewitz, *On War*, Book 6, Ch. 1; Book 7, Chs. 4-5, 22.

전쟁과 제한된 목적을 추구하는 전쟁을 구분하고, 추상 논리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절대전쟁과 정치·마찰·우연의 제약 속에서 수행되는 현실전쟁을 대비시킨 것도 동일한 통찰의 연장이었다.¹⁹⁾ 전쟁을 정념·우연·이성이라는 3요소의 불안정한 복합체로 파악한 3위일체론 역시 전쟁이 통제 가능한 기제가 아님을 재확인해 준다. 결국 나폴레옹의 시대는 ‘결정적 승리’의 매혹과, 그 매혹을 내부에서 해체할 개념적 도구를 동시에 남겼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듯, 철도·전신·참모본부·대량동원의 시대가 도래하자 독일의 전쟁계획가들은 조미니의 기하학적 집중과 나폴레옹의 섬멸 교리를 결합하여 ‘슐리펜 계획’이라는 거대한 파멸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병력은 동원표에 따라 집결하고 전선은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며, 전쟁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인간적 마찰이 제거된 거대한 기계처럼 상상되었다. 그들은 군사적 효율에 대한 맹신 속에서 마찰과 정점, 그리고 전쟁의 정치적 본질을 망각하는 과오를 범했다.²⁰⁾

3. 산업화와 단기속결의 도그마: 철도와 전차의 시대

가. 철도와 슐리펜 계획, 그리고 마른의 좌절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은 ‘결정적 승리’의 꿈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했다. 철도는 나폴레옹이 씨름했던 속도와 집중의 문제를 산업적 규모에서 해결할 도구처럼 보였다. 수십만~수백만의 징집

19) Beatrice Heuser, *Reading Clausewitz* (London: Pimlico, 2002), Ch. 3.

20) Antulio J. Echevarria II, *After Clausewitz: German Military Thinkers before the Great War*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Hew Strachan, *Clausewitz's On War: A Biograph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2007).

병을 단기간에 동원하여 결정적 지점으로 실어 나르는 일은 이제 지휘관의 천재성이 아니라 동원표와 수송 시간표의 문제로 환원되었고, 참모본부(General Staff)는 그 시간표를 설계 및 관리하는 전쟁기계의 두뇌가 되었다. 대(大)몰트케(Helmuth von Moltke)는 이 도구를 능란하게 다루어 1866년 쾨니히그레츠(Königgrätz)와 1870년 스당(Sedan)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산업화 시대에도 단기 결전이 유효하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²¹⁾ 다만 상기 2개의 승리 사례가 예외적으로 관철될 수 있었던 조건, 곧 제한적 정치목표와 정치 우위의 자기절제는 제Ⅵ장에서 좌절 사례와 대비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몰트케 자신은 시간표가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는 교조주의자가 아니었다. “어떤 작전계획도 적 주력과 의 최초 조우 이후까지 확실성을 가지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의 경구는 마찰과 우연에 대한 깊은 인식을 담고 있다.²²⁾ 문제는 후계자들에게서 일어났다. 쉘리펜(Alfred von Schlieffen)과 소(小)몰트케의 시대에 독일의 전쟁계획은 서부에서의 ‘결정적 승리’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으로 굳어졌다. 벨기에를 관통하는 거대한 우익 포위기동으로 프랑스군 주력을 단기간에 포착·격멸한 뒤, 병력을 동쪽으로 전환하여 러시아에 대처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철도 시간표의 정밀성과 결합한 섬멸전략 승배의 극치이자 단기전의 환상과 공세 우위 신념이 낳은 산물이었으며, 당대 방어 화력의 우위라는 기술적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신념이었다.²³⁾ 단일하고 일관된 ‘슐리펜 계획’이 실재

21) Dennis E. Showalter, *Railroads and Rifles: Soldiers, Technology,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Hamden: Archon Books, 1975).

22) Helmuth von Moltke, *Moltke on the Art of War: Selected Writings*, ed. Daniel J. Hughes, trans. Daniel J. Hughes and Harry Bell (Novato: Presidio Press, 1993), p. 45. 원문: “No plan of operations extends with any certainty beyond the first encounter with the enemy’s main strength.”

23) Gerhard Ritter, *The Schlieffen Plan: Critique of a Myth* (London:

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당시 독일의 대전략이 서부전선에서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의존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14년 여름 이 거대한 도박은 실행에 옮겨졌으나 9월 초 마른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공세는 파리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의 정점을 넘어선 채 동력을 상실했고, 전선은 4년에 걸친 참호전의 교착으로 굳어졌다. 마찰, 공격의 정점, 방어의 강함 등 계획 수립자들이 경시했던 모든 것이 파국적 위력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단기결전의 엔진으로 칭송받던 철도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최장기 소모전의 병참선으로 변모했으며,²⁴⁾ 기술이 약속했던 짧은 전쟁은 바로 그 기술이 지탱하는 기나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나. 전차와 전격전의 신화, 그리고 바르바로사의 붕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교착전은 기동의 부활과 ‘결정적 승리’를 되찾을 새로운 수단의 탐색을 촉발했고, 내연기관이 그 해답으로 떠올랐다. 전차·기계화부대·무전(無電)·항공력을 결합하면 참호의 정체를 돌파하여 단기결전의 꿈을 되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1940년 독일이 6주 만에 프랑스를 굴복시키자 이 기대는 신화가 되었다. 4년의 교착전이 이루지 못한 일을 기갑부대와 항공력의 결합이 단숨에 달성한 것처럼 보였고, ‘전격전(Blitzkrieg)’은 단기결전의 새로운 공식으로 전쟁사의 새로운 어휘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전격전은 사후에 구성된 전설이다. 프

Oswald Wolff, 1958); Terence Zuber, “The Schlieffen Plan Reconsidered,” *War in History*, Vol. 6, No. 3 (1999), pp. 262-305; Van Evera, “The Cult of the Offensive,” pp. 58-107.

24) Holger H. Herwig, *The Marne, 1914: The Opening of World War I and the Battle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2009); Hew Strachan, *The First World War*, Vol. 1: *To Ar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리저(Karl-Heinz Frieser)가 독일군 공간사(公刊史) 자료를 토대로 논증한 바에 의하면, 1940년의 승리를 낳은 완성된 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승리는 즉흥과 우연, 구데리안(Heinz Guderian) 같은 지휘관들의 대담하고 때로 항명에 가까운 주도권 행사, 아르덴(Ardenne) 삼림을 관통한 만슈타인의 낫질계획(Sichelschnitt)이라는 아슬아슬한 도박, 그리고 연합군 측의 연쇄적 판단 착오가 전장의 안개(fog of war)와 마찰 속에서 기묘하게 맞물린 결과였다. 독일은 계획대로 움직여 이겼다가보다, 우연히 열린 작전적 ‘기회의 창’을 누구보다 빨리 붙잡았을 뿐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독일 군부는 예외적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우연성과 대담성이 결합해 얻어진 1회적 승리를 언제든지 반복 가능한 전쟁의 공식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기기만이야말로 단기속결전의 환상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게 만든 핵심 동력이다.²⁵⁾

1941년의 바르바로사 작전(Operation Barbarossa)은 이 착각을 대륙적 규모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독일은 프랑스에서처럼 소련에서도 포위, 섬멸, 정치적 붕괴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고, 실제로 초기에는 민스크·스몰렌스크·키예프(현 키이우)에서 거대한 포위전에 성공하여 소련군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작전적 성공은 끝내 전략적 승리로 전환되지 못했다. 소련은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되 정치적으로 붕괴하지 않았고, 공간을 잃었으되 전쟁 수행 능력과 항전 의지를 잃지 않았다. 반면 독일 기갑부대는 전진할수록 전투력을 소모했고, 병참선은 한없이 신장되었으며, 열악한 도로와 악천후, 예상을 뛰어넘는 소련의 동원 능력은 속도가 생명인 기동전을 좌절시켰다. 광활한 종심(縱深)과

25) Karl-Heinz Frieser, *The Blitzkrieg Legend: The 1940 Campaign in the West*, trans. John T. Greenwoo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5); Robert A. Doughty, *The Breaking Point: Sedan and the Fall of France, 1940* (Hamden: Archon Books, 1990).

소련 체제의 회복탄력성, 그리고 작전적 성공과 정치적 승리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괴리 앞에서 독일의 공세는 모스크바에 닿기도 전에 정점을 지나 무너지기 시작했다.²⁶⁾ 제1차 세계대전의 교착전을 해결해주는 열쇠로 맹신되던 전격전은 결국 독일을 그보다 훨씬 깊고 참혹한 소모전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다. 공군력의 약속: 두에에서 전략폭격까지

지상 공세가 소모의 수렁에 빠지자 전략가들은 교착 상태를 우회할 제3의 길을 모색했고, 항공기가 해답으로 떠올랐다. 이탈리아의 두에(Giulio Douhet)는 『제공권(Il dominio dell'aria)』(1921)에서 도시와 산업 기반에 대한 전략폭격만으로 적국의 경제와 국민적 의지를 신속히 마비시키는 결정타를 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지상전 자체가 무용해진다고 단언했다. 영국의 트렌차드(Hugh Trenchard)와 미국의 미첼(Billy Mitchell) 역시 독립 공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신봉하며 유사한 예언을 공유했다. 훗날 항공력 신봉자들이 즐겨 인용한 “폭격기는 언제나 돌파한다(the bomber will always get through)”는 경구는 영국 정치가 볼드윈(Stanley Baldwin)이 1932년 11월 하원 연설에서 남긴 말이지만, 그 단호한 어조 덕분에 전간기 ‘전략폭격 지상론(至上論)’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굳어졌다.²⁷⁾ 요컨대 이는 ‘결정적 승리’를 향한 오랜 꿈이 무대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옮겨 되살아난 형태였다. 전장의 마찰과 적 야전군을 동시에 우회하여

26) David Stahel, *Operation Barbarossa and Germany's Defeat in the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7) Stanley Baldwin, Speech in the House of Commons, 10 November 1932, *Parliamentary Debates (Hansard), Commons, 5th ser., vol. 270*, cols. 632-33. 두에의 저작은 Giulio Douhet, *The Command of the Air*, trans. Dino Ferrari (New York: Coward-McCann, 1942) 참조.

전쟁을 단숨에 끝낸다는 지름길의 약속이 항공력이라는 새로운 외피를 두르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전략폭격의 역사는 그 약속의 한계를 잔혹하게 드러냈다. 공군력으로 적의 산업과 의지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산업사회의 취약성, 폭격 앞에서 민간 사기가 붕괴하는 속도, 폭격기의 목표 식별 능력에 관한 그릇된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폭격공세(Combined Bomber Offensive)는 막대한 물자와 인명을 투입하고도 독일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했고, 산업 생산을 정지시키지 못했으며, 지상군의 결전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폭격은 적 방공망, 악천후, 항법 오차, 정보 부족, 민간 사회의 회복탄력성이라는 복합적 형태의 여러 ‘마찰’에 부딪혔다. 파괴는 엄청났으나 물리적 파괴와 정치적 굴복 사이의 인과관계는 기대보다 훨씬 복잡했다.

비들(Tami Davis Biddle)이 논증했듯, 전략폭격 지상론은 기술의 실제 능력보다 훨씬 큰 정치적 효과를 약속했고, 그 약속은 공군 조직의 제도적 이해와 결합하여 자기확신의 교리로 굳어졌다. 공군력은 전쟁의 양상을 바꾼 거대한 힘이었지만, 전쟁을 홀로 종결하는 만능의 결정타는 되지 못한 것이다.²⁸⁾ 그리고 이 오래된 간극은 90여 년이 지난 2026년 이란의 하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OEF에서 미군은 38일 동안 1만 3,000개에 육박하는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경이적인 작전적 성취를 기록했으나,²⁹⁾ 이란 체제는 붕괴하기는커녕 외부의 폭격을 내부 결속의 명분으로 전환하며 오히려 응집력을 높였다. 건물이 무너지고 인물이 사라져도,

28) Tami Davis Biddle, *Rhetoric and Reality in Air Warfare: The Evolution of British and American Ideas about Strategic Bombing, 1914-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29) U.S. Central Command, “Operation Epic Fury Fact Sheet,” April 6, 2026. 미 중부사령부는 2026년 4월 초까지 1만 3,000여 소터의 전투 출격으로 1만 2,3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그것들을 엮어 주던 권력의 조직과 네트워크는 살아남았다. 두에
가 약속한 결정타(knockout blow)는 AI와 위성 네트워크로 무장
한 21세기 정밀 화력의 시대에도 여전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로
남아 있는 것이다.

4. 정보화 · 정밀화 시대의 부활과 반전: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중심전

가. 군사혁신의 충격과 공포의 교리

냉전이 막을 내릴 무렵, ‘결정적 승리’의 오랜 꿈은 정보기술의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었다. 정밀유도무기, 첨단 센서, 위성항법,
장거리 감시정찰, 컴퓨터 네트워크의 결합은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이라는 신조어를 낳았
다. 그 약속의 본질은 조미니가 추구한 ‘결정적 승리의 과학화’를
디지털 언어로 다시 쓴 것이다. 조미니가 우세한 병력을 결정적
지점에 집중함으로써 승리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정보
화 시대의 군사혁신론은 적의 지휘부 · 방공망 · 통신망 · 전력망 ·
보급망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정밀타격하면 적 체계의 중추신경
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정적 승리’를 상상하는
방식은 기하학에서 네트워크로, 병력 집중에서 정보 우위로, 회전
에서 표적화로 옮겨 갔으나, 근저를 관통하는 욕망은 달라지지 않
았다. 적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고 급소를 절단하여, 전쟁을 짧
고 결정적으로 끝내려는 욕망이 그것이다.

이런 낙관을 정보기술의 언어로 가장 간명하게 대변한 인물은

당시 미 합참차장 오언스(William A. Owens)였다. 그는 위성에서 함정 레이더, 무인기에서 원격 음향탐지기에 이르는 온갖 센서를 하나로 연결하여 광대한 전장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파악하는 ‘체계의 체계(system of systems)’를 제창했다.³⁰⁾ 반면에 신중론도 즉각 제기되었다. 일례로 코언(Eliot A. Cohen)은 정보혁명과 정밀타격이 전투 양식과 군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기술로도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장의 안개’를 걷어 낼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열망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언스의 구상이 상대가 미국의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함을 짚으면서, RMA가 전술적 명료함을 가져올지언정 전략적 불투명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으며, 결국 전쟁을 이끄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정치적 역학이라는 통찰을 남겼다.³¹⁾

이러한 기술 낙관주의가 하나의 작전 교리로 응결된 것이 올먼(Harlan K. Ullman)과 웨이드(James P. Wade)가 1996년 주창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곧 신속 지배(Rapid Dominance) 구상이다. 이들은 물리적 파괴나 화력의 투사를 넘어 적 지도부와 군대,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식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을 전쟁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일본 제국에 가했던 인지적 붕괴와 심리적 마비를 첨단 정보기술과 정밀타격이라는 비핵(非核) 수단으로 재현하겠다는 대담한 시도였다.³²⁾ 신속 지배의 논리적 골격은 전장 환경에 대한 ‘거의 완벽한 지식’, 적의 대응 의지를 꺾는 압도적 ‘속도’, 작전 수행의 ‘탁월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4개 요소로 이루어진

30) William A. Owens, “The Emerging System of Systems,”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21, No. 5 (May 1995), pp. 35-39.

31) Eliot A. Cohen, “A Revolution in Warfare,” *Foreign Affairs*, Vol. 75, No. 2 (March/April 1996), pp. 37-54.

32) Harlan K. Ullman and James P. Wade,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6).

다. 적 야전군을 정면으로 격파하는 산업시대의 소모전을 배격하고, 개전 벽두부터 적이 저항을 조직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체계의 신경중추를 절단한다는 발상이었다. 이는 두에가 공군력으로 약속했던 결정타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의 시대에 맞게 진화한 형태였다. 다만 이번의 약속은 과거의 막연한 환상과 달리 정교한 센서와 압도적 연산 능력, 무결점에 가까운 정보 우위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단기속결의 오랜 꿈이 마침내 과학적으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동반했다.

나. 걸프전과 코소보: ‘결정적 승리’의 입증이었는데가

1991년의 걸프전은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처럼 보였다. 약 6주에 걸친 항공작전에 이어 개시된 단 100시간의 지상전에서 79만 5,000여 명의 다국적군은 240명 미만의 전사자만으로 50만명 이상의 이라크 군대를 궤멸시켰다. 공격 측 병력 3,000명당 전사자 1명이 안되는 손실률은 1967년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이 기록한 손실률의 10분의 1에도 미달되는 수치였다.³³⁾ 압도적 결과는 RMA의 위력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거의 무혈에 가까운 승리는 오롯이 다국적군의 첨단 기술이 이라크군의 장비와 전의를 파괴한 덕분이라는 해석이 정설로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비들(Stephen Biddle)은 방대한 시뮬레이션과 전투 재검증을 통해 이러한 통설을 반박했다. 걸프전의 일방적 결과는 첨단 기술의 우위나 이라크군의 사기 저하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압도적 숙련도 격차와 신기술이 맞물려 빚어낸 비선형적 상승효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다국적군의

33) Stephen Biddle, “Victory Misunderstood: What the Gulf War Tells Us about the Future of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Fall 1996), pp. 139-142.

정밀무기는 이라크군이 범한 치명적 실책들을 가혹하게 응징할 기회를 얻은 덕분에 그토록 극단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비들은 실책의 연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첫째, 방어 진지 구축의 실패다.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전차를 지표면 아래로 은폐하는 현대적 진지 대신 모래 방벽(berm) 뒤에 배치했고, 이는 열상 조준경을 갖춘 미군 M1A1 전차에게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식별되는 표적이 되었다. 둘째, 조기경보와 제병협동의 부재다. 전방 엄호부대는 다국적군의 접근을 본대에 알리지 못했고, 포병 지원사격이나 연막 차장 같은 기본적 제병협동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항공 우위가 낳은 간접적 마비다. 압도적 공군력은 이라크 전차병들을 전차 밖 대피호로 내몰았고, 정보를 받지 못한 병사들은 다국적군 기갑부대가 눈앞에 닥친 뒤에야 상황을 알아차려 사실상 저항하지 못한 채 격파당했다.³⁴⁾

요컨대, 걸프전의 교훈 역시 1940년의 전격전 신화가 그러했듯 거대한 오독의 대상이 되었다. 기술의 진보는 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승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상대의 전술적 실책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쐐기(wedge)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논지는 걸프전이 작전적 차원에서 거둔 결정적 승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그 원인의 귀속이다. 프레스(Daryl G. Press) 역시 지상전투의 정밀한 재구성을 통해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가 기술 그 자체보다 병력 운용의 숙련도였음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다.³⁵⁾ 이는 곧 지휘관의 리더십과 작전개념, 부대의 숙련이라는

34) Ibid, pp. 143-174. 비들의 분석은 미 공군이 의뢰한 5권 분량의 준(準)공식 평가인 「걸프전 공군력 조사(Gulf War Air Power Survey)」와 IDA·DARPA·미육군이 공동 수행한 '73 이스팅(73 Easting) 전투'의 분 단위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재현 실험에 기초했음.

35) Daryl G. Press, "The Myth of Air Power in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Futur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Fall

인적 요소가 결정적 승리의 관건이었다는 뜻이며, 기술만능주의에 대한 반박이지 승리 자체의 부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 군사학계는 예외적 기술 격차와 치명적 실책이 교차하며 얻어진 한 차례의 승리를 기술력만으로 언제든 재현 가능한 공식으로 받아들였고, 걸프전은 그렇게 ‘정밀 결정적 승리’ 학파의 건국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일견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은 그 신화가 입증되는 두 번째 무대처럼 보였다. 나토(NATO)의 ‘동맹군 작전(Operation Allied Force)’은 단 1명의 전투 전사자도 내지 않은 채 78일간의 공습만으로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대통령을 굴복시켰다. 마침내 두에의 예언이 실현되었으며 공군력 단독으로 적을 강압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는 환호가 뒤따랐다. 그러나 바이먼(Daniel L. Byman)과 왁스먼(Matthew C. Waxman)은 ‘공군력만으로 강압에 성공했는가’라는 논쟁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³⁶⁾ 밀로셰비치의 굴복은 공군력이 홀로 이룬 마법이 아니라 항공력이 다른 압박 수단들과 빚어낸 역동적 상승효과의 산물이었다. 공습은 세르비아의 전력망과 기반시설을 타격하여 정권의 내부 불안을 조장했고, 지상군 투입 위협의 신빙성을 높였으며, 코소보해방군(KLA)의 지상 공세는 세르비아군을 은폐지 밖으로 끌어내 항공 타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리 지상군 역할을 했다. NATO의 완전한 제공권은 세르비아가 NATO에 인명 피해를 강요하거나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했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러시아마저 외교적 지지를 거두자 항전 의지가 꺾인 것이다.

2001), pp. 5-44.

36) Daniel Byman and Matthew C. Waxman, “Kosovo and the Great Air Power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4 (Spring 2000), pp. 5-38.

달더(Ivo H. Daalder)와 오핸런(Michael E. O'Hanlon)이 코소보 전쟁 연구서에 『누추한 승리(Winning Ugly)』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런 실상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³⁷⁾ 정밀타격이 약속했던 깔끔한 결정적 승리와 달리, 실제의 코소보 전쟁은 동맹국 간 불협화음, 폭격 기간에 오히려 가속된 대규모 인종청소, 오폭과 외교적 타협이 뒤엉킨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결국 1990년대의 걸프전과 코소보전은 정밀무기가 마침내 ‘결정적 승리’를 가능케 했다는 증거로 찬양받았지만, 그 실체는 정치적 맥락, 비선형적 상승효과, 그리고 물리적·외교적 수단들의 복잡한 결합이 빚어낸 성과를 오로지 기술의 공로로 귀속시킨 또 하나의 오판이었다.

다. 이라크와 아프간: 승리 선언 이후의 긴 전쟁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은 ‘결정적 승리’ 사고가 도달한 정점이자, 걸프전과 코소보에서 배태된 오판이 작전의 영역을 넘어 전후(戰後) 통치의 영역으로 확장된 사건이었다. ‘충격과 공포’로 개시된 작전에서 연합군은 3주 남짓 만에 바그다드에 도달했고, 5월 1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함상에서 “이라크에서의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를 선언하며, 이 전쟁이 “정밀·속도·대담성의 결합”으로 수행되었고 미군이 “역사상 가장 신속한 기갑부대 진격” 가운데 하나를 보여 주었다고 자평했다.³⁸⁾ 군사작전만 보면 RMA가 약속한 ‘결정적 승리’가 현실화된 순간이다. 정권의 군사력은 신속히 꺾멸되

37) Ivo Daalder and Michael E. O'Hanlon, *Winning Ugly: NATO's War to Save Kosov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38) George W. Bush, “President Bush Announces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q Have Ended,” Remarks aboard the USS Abraham Lincoln, May 1, 2003.

고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독재자의 동상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랜드연구소(RAND)의 보고서 『사담 이후(After Saddam)』가 지적하듯,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군이 해방자로 환영받을 것이고 이라크의 기존 행정기구와 치안조직이 기능을 유지하리라는 검증되지 않은 낙관에 의존한 채, 사실상 전후 계획을 방치했다.³⁹⁾ 개전 전인 2003년 2월, 신세키(Eric Shinseki) 육군참모총장이 전후 안정화에 ‘수십만 명’ 규모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의회 증언에서 경고했음에도,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은 이를 “터무니없이 빗나간 추정(wildly off the mark)”이라고 일축했다.⁴⁰⁾ 그 결과 전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자원의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권 붕괴 직후의 대규모 약탈과 무질서는 반란 세력(insurgency)이 뿌리내릴 토양이 되었다.

치안의 붕괴 못지않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오인이다. 비들은 미국이 이라크의 상황을 베트남과 비슷한 이념 기반의 ‘마오주의 인민전쟁(Maoist people’s war)’으로 오판하여, ‘민심 얻기(hearts and minds)’와 현지군에 치안을 이양하는 ‘이라크화(Iraqization)’ 전략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본질은 보편적 이념이나 민족주의 열정의 전쟁이 아니라 수니파 · 시아파 · 쿠르드족 사이의 상호 공포가 추동하는 종파 내전(communal civil war)이었다. 실제로 반란 세력의 공격 가운데 85%가 수니파 중심의 4개 주(州)에 집중되었다.⁴¹⁾ 이런 구

39) Nora Bensahel et al., *After Saddam: Prewar Planning and the Occupation of Iraq*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8).

40) Eric K. Shinseki,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5, 2003; Paul Wolfowitz, Testimony before the House Budget Committee, February 27, 2003.

41) Stephen Biddle, “Seeing Baghdad, Thinking Saigon,” *Foreign Affairs*, Vol. 85, No. 2 (March/April 2006), pp. 2-14.

도에서 미군이 서둘러 양성한 시아파·쿠르드 중심의 치안군은 수니파에게 적대적 점령군의 대리인(proxy)으로 인식되었고, 성급한 치안권 이양은 종파 간 유혈에 기름을 부었다. ‘결정적 승리’ 학파가 가장 신뢰한 2개의 도구, 즉 압도적 정밀화력과 현지군으로의 신속한 책임 이양이 역설적으로 전쟁의 정치적 본질에 가장 부적합한 처방이 된 것이다. 군사적 승리는 수단일 뿐 정치적 해결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는 이라크에서 기술적 오만과 정치적 무지가 결합한 가장 값비싼 형태로 재확인되었다.

아프간 전쟁은 동일한 명제가 20년에 걸쳐 더욱 냉혹하게 입증된 사례다. 2001년 10월 개시된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에서 소수의 미 특수작전부대와 북부동맹, 정밀공습, 위성통신, 실시간 감시정찰의 결합은 탈레반 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몇 주일 만에 무너뜨렸다.⁴²⁾ 그러나 정권의 붕괴가 국가의 재건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여 세력은 파키스탄 접경의 은신처와 부족 연결망, 아프간 국가의 취약성, 부패한 권력구조, 외국군에 대한 반감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남았다. 미국은 대테러전, 안정화, 민주화, 국가건설, 대반란전 사이에서 전략적 초점을 잃었고 우왕좌왕했다. 적을 제거하는 능력은 넘쳤으나 적이 다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정치적·사회적 토양을 바꾸는 능력은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그 결말은 냉혹했다.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은 카불을 다시 장악했고, 미국이 후원한 아프간 정부는 붕괴했으며, 8월 30일 마지막 미군이 철수했다. 같은 달 「우리가 배워야 할 것(What We Need To Learn)」 제목의 아프간재건특별감찰관(SIGAR) 보고서

42) Stephen Biddle, “Afghanistan and the Future of Warfare,” *Foreign Affairs*, Vol. 82, No. 2 (March/April 2003), pp. 31–46.

는 아프간 재건에 1,450억 달러, 전쟁 수행에 8,370억 달러 등 총 1조 달러 가까이 투입된 점과 함께, 미군 2,443명이 전사한 20년 사업의 실패를 방대한 기록으로 정리했다. SIGAR의 결론에 따르면 미국은 일관된 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실패했고, 목표는 처음부터 모호했으며, 재건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반복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시간표가 부패와 비효율을 키웠으며, 아프간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⁴³⁾ 델브뤽의 어휘를 빌리면, 섬멸을 겨냥한 서방의 슬한 전술적 성공은 탈레반의 끈질긴 소모전략(Ermattungsstrategie) 앞에서 끝내 전략적 성과로 굳어지지 못했다.⁴⁴⁾

정밀혁명 역시 그 이전의 철도와 전차와 항공기가 그러했듯 짧고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베트남전 이래 가장 길고 소모적인 두 개의 전쟁으로 되돌아왔다. 기술은 표적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식별했고,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했으며, 지휘관에게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작전 속도를 부여했다. 그러나 적의 저항 의지, 사회적 회복탄력성, 종파적 공포, 점령지 치안, 전후 통치의 정당성 같은 전쟁의 정치적 차원에는 끝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철도가 동원과 집중을 자동화하고도 1914년의 참호를 메우지 못했고, 전차가 전선을 돌파하고도 바르바로사의 속도전이 소모전으로 역전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공군력이 도시와 산업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전쟁의 종결자가 되지 못했듯,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중심전 또한 전술적 파괴를 정치적 승리로 바꾸는 연금술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다. 세대를 달리하며 이름을 바꿔 되살아난 것은 언제나 동일한

43)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 *What We Need To Learn: Lessons from Twenty Years of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 21-46-LL (Arlington, VA: SIGAR, August 2021).

44) Delbrück, *History of the Art of War*, Vol. 4, pp. 293-295.

자기기만, 곧 더 날카로운 결전의 도구를 손에 넣으면 전쟁의 정치적 본질까지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승리 사이의 간극,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공격자를 소모시키는 전쟁의 역설은 이제 더 빠른 탐지, 더 짧은 킬체인, 더 자동화된 표적화를 약속하는 AI의 시대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5. AI 시대와 결정적 승리 신화의 부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가. AI의 군사적 등장과 속결 기대의 재점화

20세기 후반 이래 일부 이론가들은 인공지능을 화약과 핵무기에 이은 ‘전쟁의 제3차 혁명’으로 불러 왔다.⁴⁵⁾ 주목할 점은 AI가 내전 약속이 앞선 기술들이 저마다 내걸었던 약속의 집대성이라는 사실이다. AI는 다출처(多出處) 정보의 융합으로 적 체계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파악하고, 표적의 탐지에서 타격에 이르는 킬체인을 압축하며, 관측·판단·결심·행동으로 이어지는 결심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최소의 희생으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클라우드비츠가 말한 ‘전장의 안개’가 마침내 걷힐 것처럼 보였다. 이는 조미니가 꿈꾼 ‘결정적 승리의 과학화’가 도달한 궁극의 형태, 곧 전쟁을 완전한 계산과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오랜 열망의 가장 정교한 비전이다.

그 메커니즘은 이전의 어떤 기술보다 구체적이다. AI는 위성·드론 영상과 신호·인간 정보를 융합하여, 과거 수많은 분석관이

45) Kai-Fu Lee, “The Third Revolution in Warfare,” *The Atlantic*, September 11, 2021.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작성하던 표적 자료를 몇 분 만에 산출한다. 계약 상한이 1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미 펜타곤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MSS)’으로 대표되는 AI 표적화 체계는 탐지에서 교전에 이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압축했고,⁴⁶⁾ 펜타곤은 2023년 「데이터 · 분석 · AI 채택 전략」을 통해 이러한 ‘결심 우위’의 확보를 국방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제도화했다.⁴⁷⁾ 일명 ‘결심 압축(decision compression)’이라 불리는 이 변화는 ‘결정적 승리’의 꿈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토대다. 정밀유도무기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의 정확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면, AI는 “무엇을 때릴 것인가?”의 인지(認知)마저 기계에 위임함으로써 인간의 마찰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앞선 모든 약속이 그러했듯 하나의 오랜 가정 위에 서 있다. 정보가 많아지고 처리가 빨라지면 전쟁의 경로를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골드파브와 린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이들에 따르면 기계학습은 결국 예측을 값싸게 만드는 기술일 뿐이며, 예측은 의사결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무엇을 최적화할지를 규정하는 ‘판단’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데이터’라는 2개의 보완재는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으며, 예측이 저렴해질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높아진다. 문제는 상거래와 달리 전쟁이 안정적 제도가 부재한 무정부적 환경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적이 의도적으로 기만하고 학습 데이

46)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이란 전쟁에서의 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Katrina Manson, *Project Maven: A Marine Colonel, His Team, and the Dawn of AI Warfare* (New York: W. W. Norton, 2026); Gideon Lewis-Kraus, “How Project Maven Put A.I. Into the Kill Chain,” *The New Yorker*, April 15, 2026.

47) U.S. Department of Defense, *Data, Analy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doption Strateg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June 27, 2023).

터를 오염시키며 ‘훈련 집합의 바깥으로(beyond the training set)’ 벗어나는 예측 불가의 전장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훼손되고 판단은 논쟁에 휩싸인다. AI는 안개를 걷어 내기는커녕 그 안개를 조직 내부로 되돌리며, 바로 그 때문에 인간 판단의 중요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증대시킨다.⁴⁸⁾ 이런 역설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장에서 확인된다.

나. 우크라이나 전쟁: 투명한 전장과 소모전의 귀환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AI 기반 표적화, 위성 감시와 정밀타격이 대규모로 포화(飽和)된 최초의 전장이었다. 많은 전문가가 이를 진정한 군사혁명으로 선언하며 드론과 알고리즘이 마침내 ‘결정적 승리’의 열쇠를 쥐여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비들이 눈 증했듯, 첨단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전쟁은 양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참호전과 소모전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지목한 근본 원인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운용이다. 기술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전투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며, 교전 양측이 상대의 혁신을 모방·상쇄하는 대응책을 빠르게 발전시켜 신무기의 순(純)전장 효과를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것이다.⁴⁹⁾ 개전 초 러시아군을 유린하던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Bayraktar) TB2가 전자전 재밍으로 수개월 만에 무력화되고, 미군의 정밀유도포탄 엑스칼리버(Excalibur)의 명중률이 70%대에서 한 자릿수로 추락한 사실은 그 상쇄의 속도를 상징한다.⁵⁰⁾ 이는 칼카라(Antonio Calcara) 등

48) Goldfarb and Lindsay, “Prediction and Judgment,” pp. 7-50.

49) Stephen Biddle,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Foreign Affairs*, Vol. 102, No. 5 (September/October 2023), pp. 153-167.

50) Sam Skove, “Another US Precision-Guided Weapon Falls Prey to Russian Electronic Warfare,” *Defense One*, May 2, 2024.

이 리비아·시리아·나고르노카라바흐 사례에서 정립한 ‘숨는 자와 찾는 자(hider-finder)’의 항구적 경쟁, 곧 은닉-탐지가 서로를 끝없이 무력화하는 다이내미즘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로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⁵¹⁾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AI의 기여가 드론 운용의 배경에만 머문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군 차원에서 운용하는 델타(Delta) 전장인식체계는 위성·드론 영상과 감청, 검증된 시민 제보에 이르는 다출처 정보를 단일 상황도로 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2023년 나토(NATO)를 포함한 10개국 15개 지휘 통제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검증받으며 사실상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⁵²⁾ 이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AI 모듈 ‘어벤저스(Avengers)’는 드론과 고정 카메라 영상에서 러시아군 장비를 자동 식별하여 매주 약 1만 2,000개의 표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⁵³⁾ 하지만 이처럼 포화 상태에 이른 AI 기반 감시·표적화는 어느 쪽에도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주지 못했다. 탐지가 빨라질수록 은닉·기만·전자전 등의 대응 역시 같은 속도로 진화했고, 투명성은 쌍방향으로 작동하여 공세를 위한 집결 자체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감시가 포화된 전장에서는 AI도 결정적 돌파를 열지 못했다.

투명해진 전장은 어느 한쪽에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주기보다 방어를 강화했다. 집결과 기동 자체가 표적이 되면서, 돌파를 위

51) Antonio Calcara et al., “Why Drones Have Not Revolutionized War: The Enduring Hider-Finder Competition in Air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4 (Spring 2022), pp. 130-171.

52) Kateryna Bondar, “Does Ukraine Already Have Functional CJADC2 Technolog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January 21, 2025.

53) “Ukraine Uses AI Tools to Identify Russian Equipment,” *New Voice of Ukraine*, September 23, 2024.

해 한곳에 집결한 부대는 포병과 드론 군집의 최우선 먹잇감으로 전략했기 때문이다. “방어가 공격보다 강한 전쟁 형태”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오랜 명제가⁵⁴⁾ 역설적으로 정보화의 정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재확인된 셈이다.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는 궁극의 해결사처럼 보였던 드론과 알고리즘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12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감내하면서도 공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길고 소모적인 진지전을 심화시키고 있다.⁵⁵⁾

다. 이란 전쟁과 OEF: AI 킬체인이 정점과 정치적 종결의 부재

2026년 2월 개시된 OEF는 역사상 가장 AI 집약적인 전역(戰役)이자 결심 압축의 약속이 전면적으로 시험된 최초의 무대였다. 개전 첫 24시간에 1,000개가 넘는 표적이 타격되었다는 사실은 단순 산술만으로도 표적 하나에 허용된 평균 심의 시간이 90초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⁵⁶⁾ 탐지 · 확인 · 추적 · 조준 · 교전 · 평가로 이어지는 킬체인이 과거 며칠을 필요로 하던 과정임을 상기하면, 이는 교전규칙과 부수적 피해를 숙고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압축은 고유한 병리를 초래한다. 시간에 쫓기는 인간의 승인은 알고리즘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요식 행위로 전략하기 쉽고, 지휘관은 AI의 추천을 과신하는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에 노출된다. 개전 당일 미군의 토마호크

54) Clausewitz, *On War*, p. 358.

55) Seth G. Jones and Riley McCabe, “Russia’s Grinding War in Ukraine: Massive Losses and Tiny Gains for a Declining Power,” *CSIS Brief*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27, 2026).

56) U.S. Central Command, “Operation Epic Fury Fact Sheet,” March 3, 2026; Lewis-Kraus, “How Project Maven Put A.I. Into the Kill Chain.”

미사일이 이란 남부 미나브(Minab)의 여자초등학교를 타격하여 약 170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는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였다. 해당 부지는 오래전 인접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기지에서 분리되어 학교로 전용되었음에도 표적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로 분류된 채 AI가 생성한 표적 목록에 올랐고, 압축된 결심주기 속에서 교차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⁷⁾ 이는 골드파브와 린지가 경고한 ‘성급한 자동화(premature automation)’, 곧 양질의 데이터가 결여된 불확실한 환경에서 치명적 행동이 자동화 되는 사태가 전장에서 현실화한 장면이다.⁵⁸⁾ 파괴한 표적의 숫자로 전략을 대신하려는 충동은 베트남 전쟁의 ‘적 사살 집계(body count)’가 반세기 만에 디지털 형태로 부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란한 작전적·전술적 성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독립적 분석들은 이번 전쟁이 산악 지하에 깊이 매설된 이란의 핵·미사일 기반시설을 파괴하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검증 가능한 핵 능력의 종식과 안정된 정치 질서라는 종전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파괴된 지하 갱도 입구가 수 시간 내에 복구되고 미사일 발사대의 상당수가 온존한 정황, 그리고 하메네이 사후 등장한 혁명수비대 중심의 후계 지도부가 오히려 더 비타협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 등은 물리적 파괴의 총량이 곧 전략적 성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오랜 진실을 재확인해 준다. 전술적 타격의 가속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앞설 수 있어도, 어떤 정치적 타협으로 상호 파

57) 미군의 예비 조사 결과와 사건 경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사망자 규모는 최소 165명에서 180명까지 보도되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의 여학생이었음. Michael Klare, “AI Plays Major Role in the War on Iran,” *Arms Control Today*, May 2026; Joseph N. Orenstein, “When Intelligence Fails: A Legal Targeting Analysis of the Minab School Strike,” *Just Security*, March 26, 2026.

58) Goldfarb and Lindsay, “Prediction and Judgment,” pp. 30-34.

괴를 멈출 것인가라는 전쟁 종결의 물음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속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⁵⁹⁾

요컨대 AI로 부활한 ‘결정적 승리’의 비전은 기술적 정점에서 가장 오래된 벽에 부딪혔다. 군사적 결판과 정치적 종결 사이의 간극, 곧 200년 전 클라우제비츠가 식별한 바로 그 간극은 인류가 보유한 가장 진보한 군사기술 앞에서도 메워지지 않았다.⁶⁰⁾ AI 시대는 그 꿈의 한계를 단지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계에 도달하는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을 뿐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가. 요약과 이론적 종합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약 200년에 걸쳐 반복된 군사기술 혁신과 단기속결전 신화의 상호작용을 통시적으로 검토했다. 철도는 동원과 집중의 속도를, 전차는 돌파와 중심기동의 충격을, 공군력은 전략폭격을 통한 의지 마비의 가능성을, 정밀유도무기와 네트워크 중심전은 감시·타격의 결합을, AI는 탐지·판단·공격의 주기를 극단적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기술은 전쟁 수행의 속도와 정밀도를 바꾸었지만, 전쟁의 본질—적과의 상호작용이며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폭력 행위라는 점—을 바꾸지 못했다. 이것이 본고가 도달한 핵심 결론이다. AI로 가속화된 2026년 이란 전쟁은 이 오래

59) 전쟁 종결 판단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Franz-Stefan Gady, “When Defense Becomes Destruction: Austria-Hungary’s Mistake and Ukraine’s Risk,” *War on the Rocks*, December 2, 2025.

60) Brenn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Surprise,” pp. 154–155.

된 명제를 최신의 방식으로 재확인했다. 지휘부의 제거는 복종보다 승계와 결사항전을 낳았고, 정밀타격은 핵·미사일 문제의 검증 가능한 해결보다 보복 의지와 지역적 긴장의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이 사례가 보여 준 핵심은 AI가 표적화와 타격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는 있어도,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전쟁을 끝낼 것인가”라는 전략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대신 풀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적 우위가 정치적 결말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위험한 착각으로 남아 있다. 제Ⅱ~Ⅴ장의 사례들은 서론에서 제시한 5개 분석 범주가 시대마다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마른과 바르바로사에서는 마찰과 공격의 정점 및 방어 우위, 전략폭격과 코소보에서는 적의 의지에 대한 오판, 그리고 이라크·아프간과 이란 전쟁에서는 정치 우위, 곧 군사적 결판과 정치적 종결 사이의 간극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나. 반례의 검토: 단기속결이 관철된 조건

본고의 논지가 성립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기속결이 실제로 관철된 반례들을 정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66년 쾨니히그레츠와 1870년 스당은 수 주일 만에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었고, 1967년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3개 방면의 적을 격파했으며,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단 5일 만에 종결되었다. 상기 성공 사례들을 관통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목표가 제한적이고 명확했으며 군사목표와 일치하였다. 비스마르크는 1866년 오스트리아의 해체 대신 독일 문제에서의 배제라는 제한적 목표를 세웠고, 승리 직후의 관대한 강화로 전쟁을 즉시 봉합했다. 2008년의 러시아 역시 조지아의 NATO 가입 저지와 남오세티야·압하지야의 분리 고착이라는 제한된 목표에 머물렀고, 트빌리시 점령을 자제한 채 5일 만에 멈추었다. 둘째,

정치적 우위가 군사적 논리를 통제했다. 성공한 단기전의 지도자들은 승리의 정점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멈추는 자기절제를 보였다. 이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 행정부가 쿠웨이트 해방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달성한 뒤, 바그다드 진격을 거부한 결정에서도 반복된다. 셋째, 상대의 전략적 중심과 전쟁수행 의지가 취약했다. 1866년의 오스트리아와 1967년의 아랍 정규군, 2008년의 조지아는 러시아·소련과 같은 대륙적 중심도, 우크라이나·이란과 같은 사회 전체의 항전 의지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성공 사례조차 논지의 반증이기보다 그 경계 조건의 확인에 가깝다. 스당에서 프랑스 제국군이 꺾멸된 뒤에도 공화국의 국민전쟁(*guerre à outrance*)은 5개월 더 지속되었고, 독일은 결정적 회전 이후의 ‘인민 전쟁’이라는 낯선 국면과 씨름해야 했다. 1967년의 압도적 승리는 분쟁을 종결시키기보다 소모전쟁(1969~1970)과 1973년 10월전쟁을 배태(胚胎)했고, 점령지 문제라는 정치적 부담을 남겼다. 요컨대 단기속결은 정치목표가 제한적이고 군사목표와 정합하며, 정치가 군사를 통제하고, 상대의 중심과 의지가 박약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관철된다. 이는 클라우제비츠의 경고가 존중될 때 비로소 짧은 전쟁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이다. 본고가 추적한 좌절의 사례들은 정확히 이들 조건이 부재한 곳, 곧 무제한에 가까운 목표가 깊은 중심과 완강한 의지를 보유한 적과 충돌한 곳에서 발생했다.

다.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상의 결론과 성립 조건은 핵무장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 안보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 수준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 정책 대안과 전력 설계의 각론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이며,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상세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결정적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의 유혹을 절제해야 한다. 발사 전 무력화와 지휘부 제거는 작전적으로 필요한 선택지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전쟁의 정치적 종결을 보장한다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 보았듯, 최고지도부 제거는 적의 의지를 꺾기보다 더욱 비타협적인 승계 구조와 보복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크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 법령을 통해 지휘통제체계가 위협에 처하거나 최고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될 경우 ‘자동적으로 즉시’ 핵 타격을 단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는 냉전기 소련식 ‘데드핸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핵 사용 권한의 위임과 자동화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위험한 교리적 시그널이다.⁶¹⁾ 한국이 참수 작전의 수사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압박 속에서 핵 선제사용의 유인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3축 체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무게중심은 단기 결판의 과신에서 거부적 억제, 생존성, 분산성, 확전관리로 재균형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종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전쟁종결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본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군사적 성공이 정치적 승리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시(戰時) 기획은 여전히 개전 초기의 전투 승리, 발사 전 무력화, 핵심 지휘부 제거에 높은 비중을 둔다. 핵무장한 적이 분산·은폐·기동·해상기반 전력을 통해 생존성을 극대화할 경우, 무장해제식 선제타격은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다. 설령 참수 작전에 성공하더라도 자동화된 보복 절차와 권한 위임 구조가 남는다면, 군사적 성공은 곧바로 전략적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확전의 문턱, 위기 신호, 정전 조건, 협상 통로, 중국

61) Paul I. Bernstein and Shane Smith, “Through a Glass, A Little Less Darkly: North Korean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38 North*, November 14, 2022.

변수, 인도적 지원, 전후 안정화 구상까지 포함하는 전쟁종결 전략을 평시부터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은 작전 설계의 장식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정치 우위 명제는 전쟁사를 설명하는 구절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한반도 전쟁계획의 구조적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압축된 결심주기와 자동화 편향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한반도는 장사정포, 단거리탄도미사일, 극초단 비행시간, 수도권 외 전방 배치로 인해 세계에서 결심 시간이 가장 짧은 전장 가운데 하나다. 한국군 역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의 표적 처리 과정에 AI를 결합하여 정보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의 압박 아래에서 노후화된 표적 정보,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 AI 추천에 대한 과신, 지휘관의 자동화 편향이 결합하면 표적 오류는 곧 민간인 피해, 국제적 정당성 상실, 핵 문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나브 초등학교 참사는 이 위험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밀도 민간 지역과 군사 표적이 중첩된 한반도에서는 한 차례의 오경보나 표적 오인도 단순한 전술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심의(審議, deliberation)를 지연 요인 대신 안전 장치로 간주하는 교리와 표적 검증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포화 공격과 비대칭적 비용 교환비에 대비하여 방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속결전의 환상은 공격자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방어자 역시 초기 요격 성공과 첨단 방공체계의 성능만으로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란 전쟁은 저가 드론·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의 혼합 운용이 고가 요격탄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북한도 장사정포, 단거리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드론, 순항미사일을 동시·혼합 운용하여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지휘통제망을 포화시키려 할 것이다. 장기전의 승패는 첫 교전의 화려한 성과보다

탄약 비축량, 생산속도, 수리·복구 능력, 분산 배치, 기만, 은폐, 민방위, 핵심 기반시설의 회복속도에서 판가름 난다. 국방투자의 무게중심 역시 첫 교전의 정밀성과 함께 탄약 비축과 생존성·복구 능력이라는 지속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속성 없는 정밀성은 전쟁의 초반을 장식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국면을 결정하지 못한다.

끝으로, 기술 만능주의를 넘어 동맹, 교리, 회복탄력성, 전략적 인내에 투자해야 한다. 현무-5, 정밀유도무기, AI 기반 표적처리 체계는 한국 안보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첨단 장비의 확보가 교리의 성숙, 지휘관의 판단력, 동맹관리, 확장억제의 신뢰성, 민간사회의 회복탄력성, 전쟁종결 전략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핵무장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결정적 일격의 유혹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 곧 초단축 결심시간, 포화 화력, 분산된 중심, 핵 사용 위협, 수도권의 인질화를 두루 갖추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한국 안보의 핵심은 더 빠른 타격만이 아니다. 더 오래 버티고, 더 정확히 판단하며, 더 신중히 확전을 관리하고, 더 설득력 있는 정치적 출구를 준비하는 능력이다. 200년에 걸쳐 반복된 단기속 결전의 좌절이 한반도에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결정적 일격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유혹을 절제하고, 거부적 억제와 생존성, 전쟁종결 전략과 동맹의 회복탄력성을 국가안보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를 망각해 온 200년의 오류가 한반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본 연구가 한국 안보에 전하려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Bensahel, Nora, et al. *After Saddam: Prewar Planning and the Occupation of Iraq*.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8.
- Biddle, Tami Davis. *Rhetoric and Reality in Air Warfare: The Evolution of British and American Ideas about Strategic Bombing, 1914–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Clausewitz, Carl von.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Daalder, Ivo H. and Michael E. O'Hanlon. *Winning Ugly: NATO's War to Save Kosov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Delbrück, Hans. *History of the Art of War*. Translated by Walter J. Renfro, Jr. 4 vol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5–1985.
- Doughty, Robert A. *The Breaking Point: Sedan and the Fall of France, 1940*. Hamden: Archon Books, 1990.
- Douhet, Giulio. *The Command of the Air*. Translated by Dino Ferrari. New York: Coward–McCann, 1942.
- Echevarria, Antulio J. II. *After Clausewitz: German Military Thinkers before the Great War*.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 Frieser, Karl-Heinz. *The Blitzkrieg Legend: The 1940 Campaign in the West*. Translated by John T. Greenwoo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5.
- Gat, Azar. *A History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the Cold War*.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2001.
- Herwig, Holger H. *The Marne, 1914: The Opening of World War I and the Battle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2009.
- Heuser, Beatrice. *Reading Clausewitz*. London: Pimlico, 2002.
- Jomini, Antoine-Henri. *The Art of War*. Translated by G. H. Mendell and W. P. Craighill.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862.
- Manson, Katrina. *Project Maven: A Marine Colonel, His Team, and the Dawn of AI Warfare*. New York: W. W. Norton, 2026.
- Moltke, Helmuth von. *Moltke on the Art of War: Selected Writings*. Edited by Daniel J. Hughes. Translated by Daniel J. Hughes and Harry Bell. Novato: Presidio Press, 1993.
- Ritter, Gerhard. *The Schlieffen Plan: Critique of a Myth*. London: Oswald Wolff, 1958.
- Showalter, Dennis E. *Railroads and Rifles: Soldiers, Technology,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Hamden: Archon Books, 1975.
- Snyder, Jack.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Military Decision Making and the Disasters of 1914*.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Stahel, David. *Operation Barbarossa and Germany's Defeat in the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trachan, Hew. *Clausewitz's On War: A Biograph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2007.
- Strachan, Hew. *The First World War. Vol. 1: To Ar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Ullman, Harlan K. and James P. Wade.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6.

- Weigley, Russell F. *The Age of Battles: The Quest for Decisive Warfare from Breitenfeld to Waterloo*.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 Zamoyski, Adam. *Moscow 1812: Napoleon's Fatal March*. New York: HarperCollins, 2004.

2. 논문

- Biddle, Stephen. "Victory Misunderstood: What the Gulf War Tells Us about the Future of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Fall 1996), pp. 139–179.
- Biddle, Stephen. "Afghanistan and the Future of Warfare". *Foreign Affairs*, Vol. 82, No. 2 (March/April 2003), pp. 31–46.
- Biddle, Stephen. "Seeing Baghdad, Thinking Saigon". *Foreign Affairs*, Vol. 85, No. 2 (March/April 2006), pp. 2–14.
- Biddle, Stephen.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Foreign Affairs*, Vol. 102, No. 5 (September/October 2023).
- Brenner, Joe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Surp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50, No. 3 (Winter 2025/26), pp. 127–155.
- Byman, Daniel L. and Matthew C. Waxman. "Kosovo and the Great Air Power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4 (Spring 2000), pp. 5–38.
- Calcara, Antonio, et al. "Why Drones Have Not Revolutionized War: The Enduring Hider-Finder Competition in Air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4 (Spring 2022), pp. 130–171.
- Cohen, Eliot A. "A Revolution in Warfare". *Foreign Affairs*, Vol. 75, No. 2 (March/April 1996), pp. 37–54.
- Farrar, L. L., Jr. "The Short-War Illusion: The Syndrome of

- German Strategy, August–December 1914”.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Vol. 12, No. 2 (1972), pp. 39–52.
- Goldfarb, Avi and Jon R. Lindsay. “Prediction and Judgment: Why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Humans i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3 (Winter 2021/22), pp. 7–50.
- Herwig, Holger H. “Germany and the ‘Short–War’ Illusion: Toward a New Interpretation?”.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6, No. 3 (July 2002), pp. 681–693.
- Owens, William A. “The Emerging System of Systems”.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21, No. 5 (May 1995), pp. 35–39.
- Press, Daryl G. “The Myth of Air Power in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Futur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Fall 2001), pp. 5–44.
- Shy, John. “Jomini”. I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143–185.
- Van Evera, Stephen. “The Cult of the Offensive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1 (Summer 1984), pp. 58–107.
- Zuber, Terence. “The Schlieffen Plan Reconsidered”. *War in History*, Vol. 6, No. 3 (1999), pp. 262–305.

3. 보고서 · 공식 문서 및 기타 자료

- Baldwin, Stanley. “Speech in the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Debates (Hansard), *House of Commons, 5th series*, Vol. 270, November 10, 1932, cols. 632–633.

- Bernstein, Paul I. and Shane Smith. "Through a Glass, A Little Less Darkly: North Korean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38 North*, November 14, 2022.
- Bondar, Kateryna. "Does Ukraine Already Have Functional CJADC2 Technolog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21, 2025.
- Bush, George W. "President Bush Announces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q Have Ended". Remarks aboard the USS Abraham Lincoln, May 1, 2003.
- Gady, Franz-Stefan. "When Defense Becomes Destruction: Austria-Hungary's Mistake and Ukraine's Risk". *War on the Rocks*, December 2, 2025.
- "Gen. Milley Says Kyiv Could Fall within 72 Hours if Russia Decides to Invade Ukraine". *Fox News*, February 5, 2022.
- Jones, Seth G. and Riley McCabe. "Russia's Grinding War in Ukraine: Massive Losses and Tiny Gains for a Declining Power". *CSIS Brief*.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27, 2026.
- Klare, Michael. "AI Plays Major Role in the War on Iran". *Arms Control Today*, May 2026.
- Lee, Kai-Fu. "The Third Revolution in Warfare". *The Atlantic*, September 11, 2021.
- Lewis-Kraus, Gideon. "How Project Maven Put A.I. Into the Kill Chain". *The New Yorker*, April 15, 2026.
- Orenstein, Joseph N. "When Intelligence Fails: A Legal Targeting Analysis of the Minab School Strike". *Just Security*, March 26, 2026.
- Parliamentary Debates (Hansard). *House of Commons, 5th series, Vol. 270*, 10 November 1932.

- Shinseki, Eric K.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5, 2003.
- Skove, Sam. “Another US Precision-Guided Weapon Falls Prey to Russian Electronic Warfare”. *Defense One*, May 2, 2024.
-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 *What We Need To Learn: Lessons from Twenty Years of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 21-46-LL. Arlington, VA: SIGAR, August 2021.
- The Soufan Center. “‘Operation Epic Fury’ Eclipses Diplomacy”. *IntelBrief*, February 28, 2026.
- The White House. “Peace Through Strength: Operation Epic Fury Crushes Iranian Threat as Ceasefire Takes Hold”. April 8, 2026.
- U.S. Central Command. “Operation Epic Fury Fact Sheet”. March 3, 2026; April 6, 2026.
- U.S. Department of Defense. *Data, Analy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doption Strateg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June 27, 2023.
- “Ukraine Uses AI Tools to Identify Russian Equipment.” *New Voice of Ukraine*, September 23, 2024.
- Wolfowitz, Paul. Testimony before the House Budget Committee, February 27, 2003.
- Zabrodskiy, Mykhaylo, Jack Watling, Oleksandr V. Danylyuk and Nick Reynolds. “Preliminary Lessons in Conventional Warfighting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February-July 2022”.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November 30, 2022.

〈Abstract〉

The Evolution and Setbacks of the Short-War Doctrine — From Railroads to AI, the Dream of Decisive Victory

Song, Seong-jong

This study traces, through a diachronic synthesis of strategic intellectual history and military history, how successive innovations in military technology since the advent of modernity have repeatedly magnified optimism about “decisive victory” and regenerated the myth of the short, decisive war. The concept of the decisive battle, which took shape in the age of Napoleon and Clausewitz, has been revived with each new technological breakthrough—from railways, tanks, and air power to precision-guided munition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rekindling expectations that wars can be brought to a swift and conclusive end. Yet, as the Marne, Operation Barbarossa, Iraq, Afghanistan, Ukraine, and the war with Iran have demonstrated, actual wars have repeatedly followed a trajectory of protraction amid friction, the enemy’s independent will, and nonlinear unpredictability.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military and operational success does not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strategic and political victory. By integrating Clausewitz’s classical insights with contemporary scholarship on the nonlinear character of war, the study explains why the

dream of decisive victory remains structurally prone to frustration even in the age of AI. It also examines counterexamples in which short, decisive wars were exceptionally realiz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argument holds and to delimit its scope of application. Finally, it briefly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Keywords : short-war illusion, decisive victory, Clausewitz, fri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원고투고일 : 2026.07.06. 심사수정일 : 2026.08.21. 게재확정일 : 2026.09.09.